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축구·배구 준우승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나명주)는 지난 13일 서울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한국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와 배구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서양새마을금고 ‘좋은이웃밝은동네’ 버금상



서양새마을금고(이사장 안두경)는 지난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좋은이웃밝은동네 대상’에서 불우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 공로를 인정받아 ‘버금상’을 수상했다. <서양새마을금고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남복지재단 연구·학술교류 협약식

전남복지재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약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지난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소회의실에서 학술·연구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식(MOU)을 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사회정책 등 보건복지 전 분야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 연구기관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서영진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등 관계 직원들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은 시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친선대사 위촉



고은 시인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친선대사로 활동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고은 시인을 평화친선대사로 위촉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역과 세대, 계층 간 갈등과 반목을 넘어 사회 통합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한국민의 염원을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시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할 목적으로 평화친선대사직을 고은 시인에게 제안했고 고은 시인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고 평가보다 40년 노력 인정받아 뿌듯”

호남 첫 패션디자인 부문 명장 전형원 양복점 대표

‘배 꿩지 마라’ 어머니 권유로 시작...전국 누비며 기술 자문 ‘맞춤양복 기술 사라지지 않아’...후배 양성·기술 개발 매진

“양복 디자이너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사실보다 40년이란 긴 세월동안 옷이란 한 걸을 걸어온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양복 기술을 배워 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어머니께 명장이라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 정말 나위 없이 기쁩니다.”

일이든지 해야했다. 체적이 왜소한 아들이 일터로 나가는 것을 미안해 하던 어머니는 그에 맞는 직업을 찾고자 전국을 누볐다. 자동차 정비기술부터 철공소 직원, 자전거 기술점과 이발소까지 찾았지만 마땅치 않았다. 때마침 그의 어머니 눈에 들어온 것이 하얀색 와이셔츠였다. ‘양복기술을 배워 굵직 말아라’는 어머니 말씀에 열일곱 살 되던 해 양복점을 찾았다. 1970년대 당시만하더라도 양복제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찾을 수 없었다. 오로지 어깨너머로 재단과 봉제를 익혀나갔다. 막연하게 양복기술을 공부하던 그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은 한 고객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광주 충장로에서 스물다섯 살 최연소 재단사로 일하던 시기에 보디빌딩 선수가 찾아왔습니다. 딱 벌어진 어깨에 역삼각형 상체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꺾여본 적 없는 체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배운 모든 기술을 총 동원해 옷을 만들었는데 그분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고객에게 저는 오히려 큰소리치며 체형을 닮았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들었던 대답이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형이라 기성복이 아닌 맞춤 양복을 사고자 왔는데 몸에 맞는 옷을 만들 수 없



다면 그건 디자이너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다’ 전 대표는 고객을 맞던 자신을 회상하면서 여전히 부끄럽다고 말했다. ‘특별한 체형 고객’과 만남 이후 양복기술관련 서적 수십 권을 구해 공부했다. 또한 전국 유명 양복점들을 찾아다니며 기술자문을 구했다. 덕분에 ‘명장’이 됐다. 최근 다양한 기성복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맞춤 양복점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그는 달라진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기성복이 맞출 수 없는 특별한 체형 고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맞춤 양복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맞춤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은 시기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양복기술을 배우는 후배 디자이너들은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전 대표는 기술 전수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대학과 학원에서 남성복 관련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자신에게 배운 지식과 기술로 강단에서 서고 양복점을 차린 제자도 벌써 여럿이다. 제자이지만 경쟁자이지 않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명장은 운이 들어왔다. “양복 명장은 저 혼자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저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준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명장이 됐다고 제품 가격을 갑자기 인상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제2회 장애인행복스타경연대회 19일 개막

사회적기업 행복문화사업단(공동대표 정선택 류동훈)이 주최하고 광주전남행복발전소(공동대표 나사균 이계원)이 주관하는 제2회 장애인행복스타경연대회가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에서 열린다. 영화 ‘서편제’ 주인공 오정해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각 구별 예선전을 거친 장애인 10명이 출전해 서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장애인 가수 서우정 씨가 축하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시각장애인 CEO 김갑주 씨가 자신의 곡 ‘내가 바라는 것은’을 CEO밴드

인 CM밴드의 반주에 맞춰 라이브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각 구에서 진행된 예선전에는 총 28명이 출전했으며 최종적으로 10명이 선발됐다. 이후 전남대 평생교육원 노래교실 김은희 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렇게 교육 훈련을 통한 장애인 오디션 방식은 작년에 행복문화사업단이 최초로 시도했다. 이날 대상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에서 연예인자격증이 수여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373-0259.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함평 다문화 ‘스터디 맘’ 8명 중입검정고시 합격

함평군(군수 안병호)과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기영)가 함께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중입검정고시반 ‘스터디 맘’에서 최근 8명이 합격해 초등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했다. ‘스터디 맘’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한국어에 서툰 엄마들로 인해 학습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평군이 지난 2월부터 운영해왔다. 총 16명이 참여한 ‘스터디 맘’은 지난 8월16일 전남대학교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제2회 중입검정고시시험에서 8명이 합격하

는 쾌거를 거뒀다. 시험에 합격한 윤지영(여·23 필리핀)씨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하는 걱정이 많았다”며 “시험에 합격하면서 자신감도 생겨 아이들 공부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함평군다문화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한국과 지역사회에 자긍심을 갖고 자녀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화기자 hwang@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충진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청년이화월례회의(회장 이철환)=16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창회

▲광주 북성중 총동창회(회장 정균표) 주관 북성인한마음 대축제=20일(토) 오전 9시 모교운동장(우천시 체육관)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유은 동문 한마음대축제=21일(일) 오전 10시 광주 동성고 운동장 문의 유은학원 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알림

▲광주력비OB모임=20일(토) 오후 6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주공 사거리 ‘친구’010-6460-478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청보호자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로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엘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지원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

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열린마음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생=동화구원에 관심이 있고 사회참여활동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10월 2일까지 기초반, 심화반 각각 선착순 20명 모집 문의 062-228-1365, 062-608-8920.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사랑넷 봉사단=뜸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은 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원은 페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광주시 생활체육야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칼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육성 교육 교육생=동화구연, 종이접기, 핸드마사지 등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참여가능 분야별 선착순 15명 9월 15일까지 접수 문의 062-228-1365. ▲맘보유엔터 살사동호회원은러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부음

▲이정순씨 별세 백진자씨 모친상=발인 15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변태우씨 별세 재환씨 부친상=발인 16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a deceased person, including details about the servi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uneral home.